“특장차 옭아맨 60년 규제 … 年 수천만원 손실”

中企 발목 잡는 모래 주머니

1962년 제정된 최대안전 경사각도 규제로 화물차 특수차 종사자들은 연간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한 공업사에서 화물차의 최대안전 경사각도를 시험하고 있다. 업계 제공

수도권에서 5t 냉동차를 모는 운송기사 A씨는 60년 전 제정된 ‘최대안전 경사각도’라는 규제 때문에 연간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차량을 좌우로 35도까지 기울였을 때도 전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제다. 1962년 관련 법 제정 당시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감안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현재까지 모든 화물차와 냉동차, 고소작업차 등 특장차에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제에 맞춰 A씨는 차체 하부에 600㎏짜리 특수 장치를 부착한 채 하루 300~400㎞를 오가야 하는 탓에 늘어난 기름값, 줄어든 화물 적재량 등으로 연간 수천만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수십년 전 제정됐거나 바뀐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노후화된 규제로 산업현장 곳곳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60년째 남아 있는 국토교통부의 최대안전 경사각도 관련 규칙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로 좌우 기울기가 10도 이내인 곳은 있지만 35도까지 기울어진 도로는 없다.

한 자동차 제조 관련 단체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도 없는 규제”라며 “화물차 및 특수차는 이미 속도제한장치, 비상 자동제동장치 등 차량 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법제화하고 있기에 전복사고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탓에 다양한 특장차를 내놓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는 설명이다.

입지 관련 노후 규제도 여전한 것으로

60년대 만든 ‘최대안전경사각도’
차량 하부에 600㎏ 장치 장착케
요즘 속도제한·자동제어장치 필수
전복위험 줄었는데도 규제 그대로

산단내 증설 추진한 식품제조사
“첨단산업 아니다” 번번이 퇴짜

나타났다. 대구 성서첨단산업단지에 있는 한 식품제조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입지 규제로 최근 1억5000만달러(약 2003억원) 규모의 수주를 포기해야 했다. 이 회사는 폭증한 해외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다섯 차례나 인근 부지에 공장 증설을 시도했지만, 매번 복잡한 행정절차로 부지 매입 타이밍을 놓치거나 “첨단 업종이 아니다”며 거절당했다. 지자체 특별승인으로 단지에 들어온 이 회사는 식품과 관련한 세계적인 특허가 있음에도 첨단 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장을 확장할 부지를 끝내 얻지 못했다.

이 회사 B대표는 “한번 입주하려면 대구시와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진행재단, 경제자유구역청 등 4~5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 진이 빠질 지경”이라며 “심지어 5~6년간 공실인 부지가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업종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지자체 등록 규제 건수는 중앙부처의 약 3배, 공무원 1인당 등록 규제 건수는 7배에 달한다.

복잡한 행정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지역 산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직원 통근버스를 운영하려다 복잡한 서류작업에 포기하고 말았다. 국토부 법규에 따르면 통근 전세버스 운영 시 지자체 신고가 아니라 승인이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는 “대부분 산단은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통근용 버스가 있어야 인재가 모인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북에서 만두와 호빵을 제조·판매하는 C기업 대표도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시로 냉동차 운영 대수를 조절해야 하는데 냉동차량 수가 바뀔 때마다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식품위생법 탓에 애를 먹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무원이 조금만 현장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지침과 고시만 변경해도 기업 환경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안대규 기자

“시멘트 가격인상 땐 셧다운” 레미콘업계, 강경대응 예고

시멘트값 올 두번째 인상 통보에
레미콘업체들 “못 버틴다” 반발

레미콘업계가 한일시멘트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등 국내 시멘트업체를 상대로 오는 31일까지 시멘트값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 중단, 사업자등록증 반납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멘트업계가 지난 2~4월 17~19%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오는 9월 또 12~15%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내 레미콘업체 대표 700여 명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멘트 가격 기습 인상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멘트값 폭탄 맞아 중소기업 다 죽는다’ ‘독과점 부당이익, 구매자에게 환원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 900여 개 중소 레미콘업체를 대표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레미콘 가격 인상을 건설업계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시멘트 가격만 올리면 중소기업은 샌드위치 신세가 돼 고사할 것”이라며 “이달 말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레미콘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멘트업계 담합 의혹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시멘트 공장이 있는 강원과 충청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레미콘업체 대표는 “업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수십 년 만”이라며 “공장을 멈춰 세우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업계는 시멘트업계의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일부 지방에선 시멘트업체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는 피해가 접수됐다”며 “5개 시멘트회사가 국내 시장의 94%를 장악한 상태에서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 시멘트회사 교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시멘트 제조 연료인 유연탄 도입 원가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시멘트 가격이 평상시 오름폭보다 8~10배나 크고 시멘트업계가 흑자를 내는 점으로 볼 때 이번 기습 인상은 상도의상 맞지 않다”고 레미콘업계를 거들었다.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 레미콘업체는 경영난으로 14곳이 폐업하고 41곳이 매각됐다. 안대규 기자

“펄케어 마사지기, 미세전류로 탄력개선”

으뜸중기

제이아트컴퍼니 홈케어 미용기기

제이아트컴퍼니가 올 상반기 선보인 ‘펄케어 고주파 갈바닉 마사지기’(사진)는 고주파 마사지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한데 모은 얼굴 전용 올인원 미용기기다.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인 미용기기 시장에서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설계 및 제작된 제품이다.

펄케어 고주파 갈바닉 마사지기의 주요 기능인 고주파 마사지는 10만㎐ 이상의 교류 전류로 피부를 자극해 탄력을 개선한다. 함께 발산되는 온열은 피부 속 탄력까지 개선하고 모공 내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제품에 적용된 갈바닉은 같은 극을 밀어내는 미세전류를 활용한 기능이다. 음이온을 방출해 화장품의 영양분을 이온화시켜 피부 깊숙이 흡수되도록 한다. 양이온은 모공 속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 전기근육자극요법(EMS) 모드를 사용하면 미세한 전기 신호로 얼굴 근육을 자극해 피부 탄력을 높이고 뭉친 근육을 풀 수 있다.

펄케어 고주파 갈바닉 마사지기는 국내 기술력으로 설계 및 제작됐다. 인증별로 피부 특성이 다른 것처럼 해외 현지 시장의 특성에 맞춰 자체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미국 판매를 위한 연방통신위원회(FCC) 인증과 유럽 판매를 위한 CE 인증을 획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에 부여하는 브랜드K 미용기기로도 선정됐다.

제이아트컴퍼니는 2019년 미용기기 전문 브랜드 펄케어를 선보이고 미용기기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그동안 ‘펄케어 소닉 초음파 마사지기’, 가정용 피부 관리기, LED(발광다이오드) 마스크 등을 선보였다. 지난해 매출은 50억원을 기록했다. 제이아트컴퍼니 관계자는 “해외 바이어 발굴과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경진 기자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제 활용 中企 영업익 2배 높아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141곳을 대상으로 한 지원 효과 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미활용 기업 대비 보증 활용 기업이 영업이익은 109%, 매출 15%, 종업원 수는 13% 높았다. 또 보증 활용 기업의 경우 지원 1년 전과 1년 후를 비교해보면 평균 매출은 12%, 종업원 수 10%, 영업이익은 11% 증가했다.

미활용 기업은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98%, 매출 3%, 종업원은 3% 감소했다. 보증 활용 업체는 연평균 1억8000만원 규모 구매 절감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경주 기자

예산 가장 많이 늘린 중기硏, 연구실적은 ‘바닥’

주요 공공 연구기관 5곳 비교
에너지硏 과제수행·국제논문 1등

국내 주요 경제·산업계열 공공 연구기관 인력·예산

	인력(명)	예산(억원)
한국개발연구원	518	8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24	406
산업연구원	236	319
에너지경제연구원	184	312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13	216

자료: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국내 경제·산업 계열 주요 공공 연구기관 가운데 중소기업 연구에 특화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부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연은 주요 연구기관 중 예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지만, 연구 인력당 수행 과제 건수와 국제 논문 게재 건수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기연 등 5개 연구기관 중 에너지경제연이 연구 인력당 과제 수행 건수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평균 연구인력당 수행 과제는 4.76건으로 대외경제정책연(3.89건) 산업연(3.85건) 중기연(3.52건)을 크게 앞섰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공공투자 사업이 많은 KDI는 수행 과제 건수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기간 연구인력당 국제 논문 게재 건수도 에너지경제연이 0.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외경제정책연(0.27건) 중기연(0.12건) KDI(0.1건) 산업연(0.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대표 중소기업 연구기관인 중기연은 투자 대비 부진한 성과를 거뒀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예산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중기연은 30.9%로 주요 기관 중 가장 높았다. 인력당 예산 역시 중기연이 1억9000만원으로 대외경제정책연(1억8000만원) 에너지경제연(1억6000만원) KDI(1억5000만원) 산업연(1억3000만원) 등보다 높게 나왔다.

중소기업계에선 중기연이 예산과 인력에 걸맞은 실적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올 들어 중소기업포커스, 해외동향 보고서 발간 실적도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관장이 최근 직장 내 갑질 신고로 경고처분을 받는 등 조직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 과제나 자체 사업이 많은 기관은 과제 수행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분묘 개장 공고(1차)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지번	분묘 기수	비고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142, 143-6, 143-2, 140, 140-1, 140-2, 139, 147-1, 558-15, 866-6, 872-24, 141-1, 141-2, 141-3, 172-5, 137-2, 137, 131-3, 산60-1, 산63, 138, 136, 135, 산64-1, 114-7, 114-3, 114-4, 114-5, 산68-3, 산66-4, 산67-1, 46-19, 114-1, 114-8, 114, 115, 114-9, 114-2, 113-1, 114-6, 113-2, 115-2, 115-1, 118-1, 118-4, 557-32, 307-15, 307-2, 307-3, 307-4, 307-5, 307-6, 307-7, 307-8, 307-9, 307-10, 307-11, 307-12, 307-13, 307-14, 116	16	유골등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64-2, 64-7		-

2. 개장사유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시행에 따른 개장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4. 공고기간 : 2022.8.26. ~ 2022.11.27.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개장
6. 개장 및 안치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금산 일불사 추모공원(해당지역등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7. 안치기간 : 개장(화장) 후 10년간 납골당 안치
8. 신고방법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제출
9. 신고 및 문의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빌딩 4층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권수도사업단 보상부 (☎041-620-4715~4716)
10. 기타사항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편입토지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유골등)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함.

2022년 8월 26일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권수도사업단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 공모

국민과 함께, 미디어와 함께하는 스마트 광고허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임원을 공개모집 합니다.

1. 공모직위 : 감사(1명)
2. 지원자격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갖추신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
○ 방송·광고 관련 분야의 업무 이해도가 높으신 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기준 등)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분
3. 응모방법
○ 본인 응모
○ 제3자 추천(전문기관, 학회, 단체 등)
※ 제3자 추천의 경우 추천자가 추천서와 피추천자의 추천동의서 등 아래의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마감 시한까지 제출
4.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5. 제출서류(양식은 공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지원서 1부(제3자 추천의 경우 추천동의서)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1부(관련 증빙서류 포함)
○ 주요 경력증명서 각 1부(단, 대표경력 중심으로 3건이내)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26(금) ~ 2022. 9. 2(금), 18:00까지
○ 접 수 처 : (04520)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7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인사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접수 및 등기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의 경우 주말, 공휴일 불가
7. 기타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를 참고하시거나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02-731-7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부동산 공매 공고

1. 매각부동산의 목록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198-1, 대구 신서혁신도시 오피스텔 307호 외 [illegible] (단위 : ㎡)

물건번호	동	층	호수	면적
1	1	3~15	[illegible]	14,805
	2	4~15	[illegible]	
2		1~2	[illegible]	6,535
합계				21,339

2. 공매실시일자 및 공매예정가격 (단위 : 원, VAT 별도)

물건번호	층	1회차 2022.09.05 11:00	2회차 2022.09.05 16:00	3회차 2022.09.06 11:00	4회차 2022.09.06 16:00	5회차 2022.09.07 11:00	6회차 2022.09.07 16:00
1	전체	77,266,084,800	75,405,634,170	68,542,170,740	65,878,725,310	61,815,270,080	57,851,816,450
2	전체	81,666,403,600	77,580,261,920	73,487,090,240	69,413,819,560	65,330,746,080	61,247,575,200
합계		158,932,488,400	152,985,896,090	142,029,260,980	135,292,544,870	127,146,017,760	119,099,391,650

물건번호	층	7회차 2022.09.08 11:00	8회차 2022.09.08 16:00	9회차 2022.09.13 11:00	10회차 2022.09.13 16:00	11회차 2022.09.14 11:00	12회차 2022.09.14 16:00
1	전체	54,086,362,320	-	-	-	-	-
2	전체	57,164,403,320	53,081,231,840	48,098,060,160	44,314,868,480	40,831,716,800	36,748,545,120
합계		111,250,765,640	53,081,231,840	48,098,060,160	44,314,868,480	40,831,716,800	36,748,545,120

물건번호	층	13회차 2022.09.15 11:00
1	전체	-
2	전체	32,665,373,440
합계	-	32,665,373,440

※ 공매대상 물건 세부 현황, 공매관련 기타사항 및 공매변경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kbreit.co.kr) 및 한국경제신문 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위 공매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납부해야 함.

3. 공매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 (1588-5321)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단, 단독응찰도 유효함)
- 본 공매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한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illegible]

5. 입찰보증금
[illegible]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illegible]

구분	금액	납부일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금	매매대금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이내

[illegible]

7. 입찰신청 및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illegible]

8. 계약체결 장소
[illegible]

9. 유의사항
[illegible]

2022년 8월 26일

KB부동산신탁